

전주시, 임금근로자 비중 가장 높아

'지나해 도내 시군별 취업자 현황' ...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농림어업·도소매음식숙박업 순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로 조사됐다.

호남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전북 시군별 취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가 임금근로자 비율이 76.7%(22만2,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군산시(69.1%), 익산시(64.6%), 완주군(52.2%), 정읍시(49.8%), 남원시(44.2%), 김제시(42.2%), 장수군(40.4%), 무주군(38.9%), 고창군(34.3%), 부안군(34.1%), 순창군(33.5%), 진안군(32.4%) 등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임실군으로서 4만

2,000명(27.3%)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 하반기(10월) 도내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 차이도 나타났다.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더 많은 시군은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 순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근무지 기준 취업자보다 거주지 기준 취업자가 더 많은 시군으로 유일했다.

근무지 기준 취업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통근취업자 취업률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도내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은 사업

개인공공서비스(32%), 농림어업(21%), 도소매음식숙박업(18%)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시군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임실군 62%(9만6,000명), 광제조업은 군산시 23%(27만8,000명), 건설업은 전주시 10%(29만9,000명), 도소매 음식업은 전주시 22%(62만1,000명), 전기통신업은 전주시 11%(31만3,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는 전주시 44%(125만8,000명)로 나타났다.

직업별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시군을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임실군 3%(5,000명), 사무종

사자는 장수군 6%(8,000명),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장수군 11%(1만5,000명),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주시 2%(5만 9,000명), 기능기계종사자는 고창군 8%(2만5,000명), 단순노무 종사자는 임실군 8%(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시군별 취업률과 직업별 비중이 다른 것은 시(도시)와 군(농어촌)은 직업·산업 분류 등에서 차이가 나고 이것이 고용률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은 거주자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여서 직업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광영 기자

시민·대학생단체, 사드 배치 규탄

시민·대학생단체들이 26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에 연일 비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학생행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정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로 더 큰 불을 지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사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마자 경찰은 우리를 강제해산시키고 한 명을 연행했다"며 "반대 목소리조차 폭력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폭력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학생행진은 지난 23일 서울 명동역에서 출발하는 사드반대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대학생 1명을 연행, 지난 25일 석방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도 "국방부는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주변국과 갈등이 유발돼 국가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안보를 위협하는 꼴이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우리의 미래 먹거리"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나는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 먹거리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이순철 전경련 회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정밀진단 결과 '안전'

2015년부터 430일간 '탑의 균열·기울기·지반상태' 등 측정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정밀진단 결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보 제11호인 익산 미륵사지 동원9층 석탑의 균열상태와 기울기, 지반침하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오차 범위내로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동안 미륵사지 동원9층 석탑은 지난 1992년 복원 이후 1층 탑신부 등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안정성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도는 문화재청 국고보조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430일 동안(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진단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석탑에 발생한 손상 및 강도저하를 모두 고려했으며, 지반 안전성 검토도 함께 진행한 결과 부등침하 등이 허용기준치 내로 확인되는 등 현재 석탑의 구조적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이다.

현재 발생한 손상(이격 및 균열)은 대부분 복원 직후 발생한 것이며, 이

후에는 특이한 변화 없고 근래에는 균열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북도는 더 명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기적인 계측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 "앞으로도 문화재를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요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방 차원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무료' 문화 예술프로그램 진행

박물관·미술관 등 도내 124개소에서 다채로운 행사

전북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무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도내 124개소의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서 '무료' 문화 예술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27일 18:10분부터 1층 로비에서 예능에 끼가 있는 청원이 공연단을 구성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개최한다.

이어 익산예술의전당은 대형 스크린에 서울 예술의전당 '발레 호두까기 인형' 실황 공연, 익산문화원의 '해설이 흐르는 전통 의례 관람'과 백제의상 입어보기 체험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김제문화예술회관은

국내 최대 규모 클래식타 합주단인 '그림기타 앙상블'의 연주, 전주전통문화관, w미술관, 교동아트미술관 등 도내 시군 곳곳에서 다채로운 공연·전시 무료행인 제공될 예정이다.

경제적·시간적인 이유로 별도의 휴가계획을 세우지 않은 도민들에게는 무더위를 피해 가까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한여름밤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상에 바쁜 도민들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만이라도 가족, 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문화시설을 방문해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 어린이회관,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폐관

전북어린이회관이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폐관된다.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을 위해 전북어린이회관 전시관은 내달 1일부터, 공연장은 9월 1일부터 폐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야외광장 및 놀이시설은 폐쇄하지 않

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9~10월에 추진하려던 유아문화체험행사 및 어린이 과학체험행사는 취소된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회관은 복합체험 문화공간인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으로 거듭나 덕진공원과 동물원, 한옥마을 등 지역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119구급대 하루 평균 4755명 환자 이송

올해 상반기에... 5월·오전 9~10시 가장 많이 출동

119구급대원들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4755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월과 오전 9~10시에 가장 많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안전처의 올 상반기 '119구급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119구급대원들의 총 이송환자는 84만3663명으로 하루 평균 4755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33명)보다 일일 평균 22명의 환자를 더 이송한 것이다. 구급차 1대당 이송인원은 657명이었다.

월별로는 가족단위 활동 빈도가 높은 가정의 달 5월에 15만6095명

(1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월 15만446명(17.3%), 4월 14만5020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9~10시 5만172명(5.8%)으로 가장 많았다. 오전 10~11시 4만6885명(5.4%), 8~9시 4만5346명(5.2%), 오후 1~2시 4만4301명(5.1%) 순이었다.

연령대는 51세~60세(17.2%)가 가장 많았고 71~80세는 15.6%, 41~50세는 13.3%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집이 47만5454명(54.9%)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일반도로 11만5012명(13.3%), 주택가 5만3378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박용주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